

04 2019
VOL.226

언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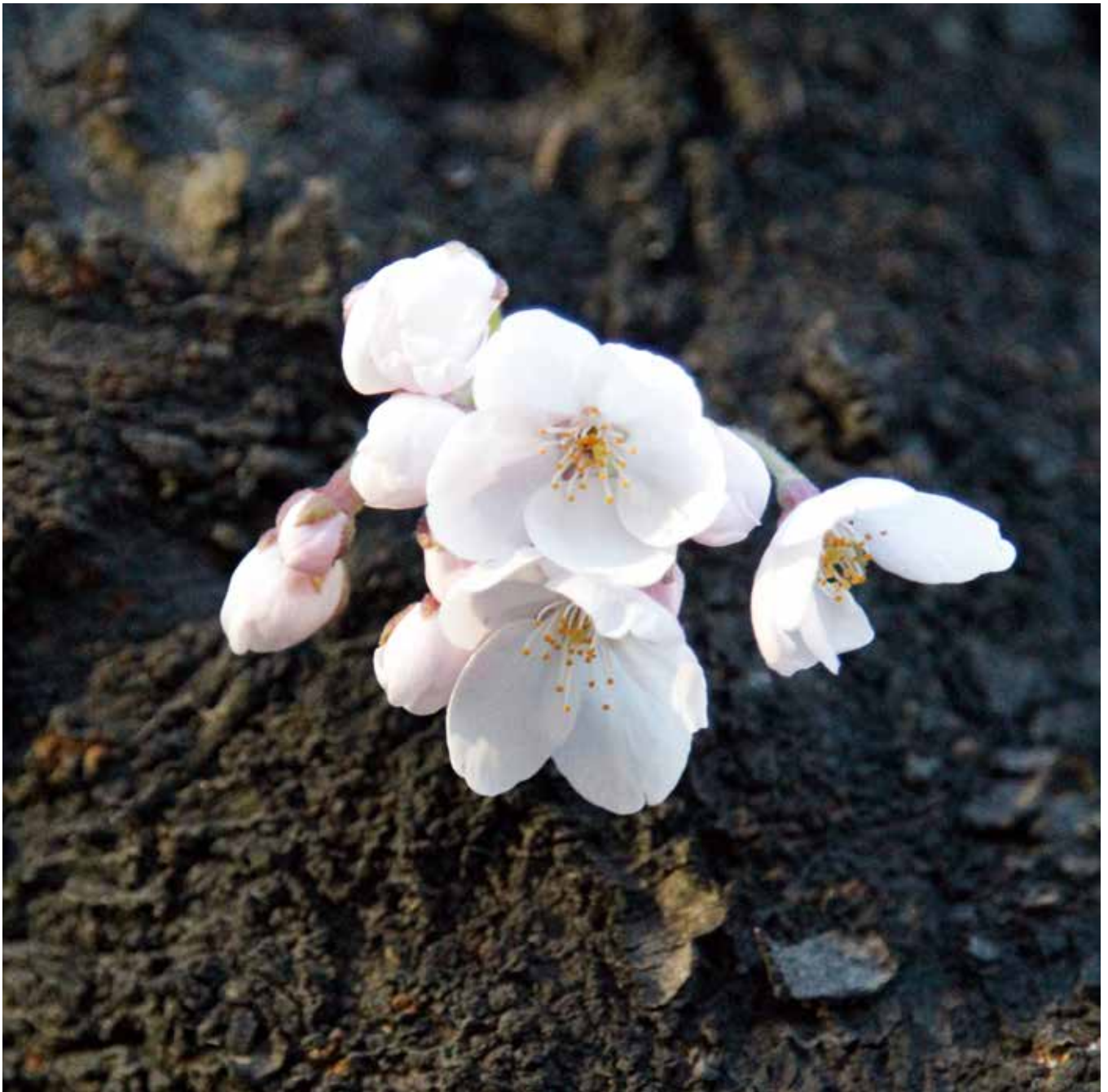


04 인터뷰 人+人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06 손거울
6인치 안 개구리

10 NEWMEDIA OF THE WORLD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14 이달의 시
우주의 이치에 전율하는 고요한 밤



긴 겨울 간난의 시기 비집고 일어나는 생명

봄바람에 겨우내 쌓인 차가운 기운이 밀려날 즈음, 길가의 벚꽃나무를 좀 더 자세히 바라보자.
작은 꽃봉오리가 수줍게 하나둘 드러나 있다. 겨울의 흑독함을 이기고, 따뜻한 바람을 흠뻑 맞으며 솟아 나온다.
이맘때면 약속이나 한 듯 나무 틈을 비집고 드러나는 무수한 생명의 봉오리들!
자연은 얼마나 신묘한지! 생명(生命)은 신비함 그 자체고, 기적이다.

글·사진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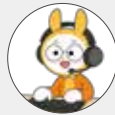
CONTENTS

04 2019 VOL.226

- 02 CLOSE UP
긴 겨울 간난의 시기
비집고 일어나는 생명
- 04 인터뷰 人+人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06 손거울
6인치 안 개구리
- 08 세상사는 法
<보헤미안 랩소디>와
사자명예훼손 문제
- 10 NEWMEDIA OF THE WORLD
상상이 현실이 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 12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소피커'
- 14 이달의 시
우주의 이치에 전율하는 고요한 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어
<원더>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변시지 <폭풍 속 기다림>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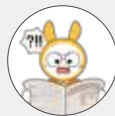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 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합의를 통해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지난 3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SNS 매체를 통해 생방송된 범행 순간으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는 해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와 차별이 점차 확산되는 지금, <언론사람>은 홍성수 교수를 만나 공존의 사회를 위한 혐오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Q 지난해 저서 <말이 같이 될 때>는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는데요. 혐오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법학자로서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져오다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분

야가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거든요. 일간베스트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한 쪽에서는 나쁜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 분류가 주류였습니다. 저는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지난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대응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요. 추진위의 설립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권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대응위원회를 설립한 것이죠. 다만 대응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A 우리 헌법에도 평등권 관련 조항이나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는 선언을 법률로 실질화할 필요가 있죠. 근거 법률이 있으면 어떤 표현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럽은 강력한 법으로 대응하고 미국은 사회적 면역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둘 다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나의 방식만 택해 혐오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혐오에 대응하는 사회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면역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져야 경기가 시작되듯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Q **성별 간의 혐오 문제,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해악이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강남역 사건과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여성 혐오는 현실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도 강화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난민이나 이주자에 대한 혐오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난민이나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취약한데다, 당사자들의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세력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 지위에 놓이고 혐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Q **차별과 혐오가 인터넷 상 가짜뉴스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독일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사업법(NetzDG)'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를 통해 많은 판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면 규제 기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체계와도 충돌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법안은 가짜뉴스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설정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법안은 가짜뉴스를 굉장히 모호하게 정의해서 남용될 가능성을 남겨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규제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안 사례집>의 '김치녀'와 '김치남'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제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웃음). 저는 특정한 혐오 표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 표현이 초래하는 효과에 주목합니다. 남성들도 맥락에 따라 외모, 경제적 능력 등의 이유로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 혐오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혐오 표현이 그 남성의 소수자성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혐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은 항상 맥락 속에서 해당 표현의 효과와 의미를 성찰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 표현을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일반적으로 같은 위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혐오 표현은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 폭력 등 여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혐오 표현이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고 공존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언론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내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언론이 지금 당장 혐오 표현을 일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혐오 표현이 떠돌고 차별적인 표현이 난무하더라도, 최소한 언론만큼은 이런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말이 칼이 될 때>에서도 언급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도 시정권고 등을 통해 언론으로 인해 전파되는 혐오 표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으로 전파된 혐오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다 많은 표현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기여하는 형성적 규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기관들의 지원이 보태진다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법학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 혐오 표현의 문제를 일거에 일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 표현이란 건 없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들을 만들고 공유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의 문제는 더 이상 도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혐오 표현 문제를 지금까지 연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6인치 안 개구리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오늘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아래 기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연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국내 다른 항공사 승무원보다 4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연평균 최댓값은 4.681mSv로, 가장 낮은 A 항공 승무원(1.024mSv)의 5배에 가까웠다.

지난해 7월, 인도 서부의 한 마을에서 행인 다섯 명이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SNS에 '어린이 유괴범들이 그 마을에 돌아다닌다'는 메시지가 퍼졌기 때문이라고 인도 언론과

CNN은 보도했습니다. 활자화된 모바일 메시지를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폭력 사태가 확산되자,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됐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인도에서 'SNS 소문'으로 적어도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부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출신 영화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별세' 그리스 문화부 장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포스팅된 이 부고 기사는 가짜였습니다. 토마쑈 데 베네데티라는 이탈리아 기자는 '소셜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계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SNS에서 사망 소식은

잘 먹힌다. 유감스럽게도 언론은 속도를 중요시하고, 가짜뉴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17년 1월 발표한 미래예측 보고서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과 팩트체크 인력의 급증을 예견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2022년이 되면, 대부분 사람이 진짜보다 가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방송기자연합회는 2018년 가을,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적잖은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콘텐츠 에세이 부문의 한 수상자는 현대인을 '6인치 안 개구리'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넓은 세상 밖을 보지 못하고, 스마트폰 속 포털과 SNS가 제공하는 뉴스만을 접하는 정보 편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교양 필수과목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기사나 정보를 접할 때, 출처를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떤 언론사인지, 이 기사는 지금껏 어떤 기사를 썼고, 출처를 어디로 밝히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작한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에서 언론사의 지분구조와 주요 광고주를 밝히고, 기자의 프로필과 과거 기사를 알리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누락된 불편한 진실은 없는지, 중요한 진실을 어지럽히는 시도는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 재벌의 부패 의혹이 재벌 일반에 대한 언론의 공격으로 확산된다면, 물타기 시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와 숫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도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아베 정부의 임금감소율 통계 부정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에 유리하도록 임금감소율을 축소하려고, 근로자 모두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통계 일부만을 인용하거나 시작 연도를 다르게 뽑는

수법도 자주 나타납니다.

입맛에 맞는 단위로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영국 왕실, 우리가 낸 56펜스로 어떻게 1년 살림?'이라는 영국 언론의 기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56펜스는 약 8백 원이지만, 영국 인구를 곱하면 5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용을 한 사람 단위로 강조해 왕실이 쓰는 비용을 작게 보이려 한 것입니다. 경제 기사의 경우 그래프 조작도 자주 등장합니다. Y축의 시작을 0으로 하면 변화가 작게 보이지만, 큰 숫자로 시작하면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평균값의 선택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3천4백만 원)는 산술평균이고, 중위값을 평균값으로 선택할 경우 1인당 소득은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또 백설공주나 피노키오 같은 동화를 현실에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동화처럼 선과 악이 구분되고 권선징악이 명확한 스토리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의 경험이나 케이스로 시작하는 기사의 경우, 그 케이스가 전부인 양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케이스는 그저 수많은 데이터 중 하나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유통의 특이한 패턴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뉴스는 최초 송고된 직후 유통이 급증하다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반면, 가짜뉴스는 송고 날짜가 한참 지난 뒤에 간헐적으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세력이 유통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가짜뉴스에는 통계적으로 '발각', '진실', '들통', '충격'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설명입니다.

1회 팩트체크 공모전 수상작인 첫 퀴즈의 답을 공개합니다. 방사선 피폭량은 극지방을 통과하는 횡수와 비행거리가 주요 변수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비교된 다른 항공사는 국제항공 노선이 적어 비행거리가 짧고, 극지방을 지나는 노선은 아예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못한 비교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수상자가 남긴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이 당신 마음에 꼭 드는 기사라면,
왜곡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프레디의 매니저, 폴 프렌터에 얽힌 진실

<보헤미안 랍소디>는 위대한 록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와 밴드 퀸(Queen)의 전기 영화이다.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과 퍼포머스가 화려한 영화였지만, 필자는 일종의 직업병인지 몰라도 프레디 머큐리의 불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로 그려진 폴 프렌터(프레디 머큐리의 개인 매니저)에 눈이 갔다.

영화를 보는 동안 과연 폴 프렌터가 실존 인물인지가 궁금했다. 영화에서 폴 프렌터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보헤미안 랍소디>가 최근 인물(프레디 머큐리, 1946~1991)에 대한 전기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인이 생존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이와 같이 단선적으로 악역으로 묘사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그런데 영화 관람 후 검색해보니, 예상과 다르게 폴 프렌터는 실존 인물이었다.

검색 결과, 폴 프렌터가 프레디 머큐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인 듯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중요하게

<보헤미안 랍소디>와 사자 명예훼손 문제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묘사된 사건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 가령 폴 프렌터가 프레디 머큐리로 하여금 밴드매니저인 존 리드를 해고하게 했다든가, 프레디 머큐리를 퀸의 나머지 멤버들과 멀어지게 한 내용은 픽션이었다.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는 존 리드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멤버들은 늘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폴 프렌터가 실존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폴 프렌터 측에서의 제기를 해봄 직한 상황이지 않겠는가! 아무리 영화 장르이더라도, 이 영화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 영화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폴 프렌터 입장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였다. 영국의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법원이 실존 인물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방송한 역사 드라마와 관련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폴 프렌터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접한 순간, 많은 사람의 노고가 집약되는 영화를 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다. 폴 프렌터는 2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가족이 없이 사망하여 법적으로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인물이었다. 제작사가 이러한 사정을 계산에 넣고 스토리를 설계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어쨌든 폴 프렌터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이름은 죽어서도 곳곳이 남는데, 이승에 그 이름을 보듬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외롭고 헛헛한 기분이었다. 이름 지키자고 자손을 남기는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유족들이야말로 나의 사후에도 내 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쟁점과도 이어진다.

죽은 자의 명예는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우리 형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연 이 규정이 '죽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족의 추모 감정'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인지를 두고는 견해 대립이 있다. 법문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자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는데, 근거로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권자가 원칙적으로 친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 친족, 가족 등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내로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많은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죽은 자는 아무리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도, 실제적으로는 고소할 수도 없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최근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죄로 광주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연일 보도가 되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관총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한 것이다.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민사 재판이 이루어졌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 내용을 명예훼손이라고 인정, 7,000만 원 손해배상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사에서도 허위 사실 입증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전두환 씨가 허위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원래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이전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에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허위성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기는 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해석이 너무도 빠르고 손쉽게 다수에게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사자의 이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글 배기형(KBS 국제방송부 PD)

현실보다 더 생생한 새로운 세계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은 가상의 공간에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마치 직접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공하여 우리의 오감(五感)을 확장하면서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 추세에 있다. 가상현실이 보다 우리에게 친근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게임이다. 몰입감이 주는 재미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게임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거리에는 VR을 이용한 게임방이 이미 성업 중이다. 가상현실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기에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으며 빠른 기술 발전을 매개로 하여 높은 성장을 보인다.

한편,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를 더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비추면 스크린에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 세계와 결합하여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The Weather Channel>은 증강현실을 날씨예보 프로그램에 사용했다

2016년에 등장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는 대표적인 증강현실 콘텐츠로서 대중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증강현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다. 증강현실은 체험 기능이 강조된 콘텐츠에 적합하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몰입도 강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일기예보나 스포츠 중계 등에서 특특히 제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날씨 전문 채널 <The Weather Channel>은 생방송 진행자의 손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증강현실 이미지를 일기 예보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태풍이 불 때 그 규모와 피해를 가상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게 날씨 정보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 개표 방송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그래픽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많은 방송사가 증강현실 스튜디오를 만들어 각종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시각화에 공을 들였다. 증강현실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콘텐츠를 즐기며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CNN은 360도 시청이 가능한 CNNVR을 출범시켜 VR 뉴스를 제공하는 등 언론사를 중심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저널리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다양한 종목에서 마치 독자들이 실제 있는 장소에서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AR 역시 가장 인기를 끄는 부문은 게임이다.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갖는 강한 몰입성이 실제 현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지는 가상 세계의 구현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미래를 본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도 아울러 주목받고 있다. 혼합현실은 실제

의 배경에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여 기존보다 진화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2017년 노르웨이의 <The Future Group>과 영국의 <Fremantle Media>가 함께 만든 MR 게임쇼 <로스트 인 타임(Lost in Time)>은 세계 최초의 혼합현실 TV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MR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다양한 시공의 가상세계를 오가며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모험을 이어나가는 게임쇼이다.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모험을 지켜보며 도전 과제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TV 방송의 선형적인 시청 경험을 양방향성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가상현실을 인터랙티브한 것으로 만들고 역동성을 부여해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노르웨이에서 방송된 <로스트 인 타임>의 성공에 힘입어 향후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콘텐츠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디지 캐피탈(Digi-Capital)은 2020년에는 세계 AR, VR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가상현실 관련 콘텐츠 시장이 350억 달러, 이용자 3억 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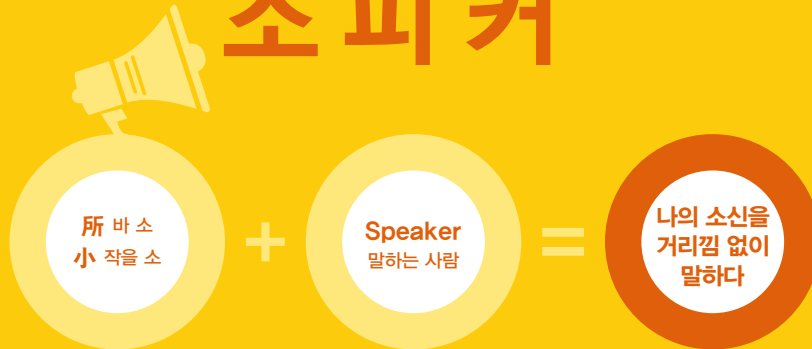
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콘텐츠도 게임에서부터 공연, 이벤트, 영상, 유통, 교육, 의료, 국방,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가상현실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현실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9,636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 7,0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콘텐츠는 소비자의 욕망을 끊임없이 건드리고자 한다. 욕망이야말로 콘텐츠 소비의 진정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매력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열광시키는 이유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한 매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매력은 소비자의 가슴과 머리를 사로잡는 힘이다. 현대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욕망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콘텐츠가 삶의 질을 제고하게 한다. 단지 지식과 정보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바로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소피커



글 송혜윤(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소신 표현에 거침이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말하는 데 익숙하다.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소신 있는 인물과 브랜드를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소피커'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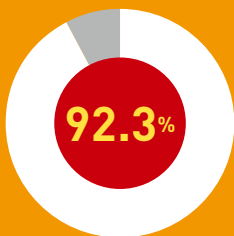
요즘 밀레니얼과 Z세대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는 연예인은 누구일까? 아마 음악전문채널 Mnet <고등래퍼 시즌 2> 우승자 김하은, 개그우먼에서 연출·기획자로 성장한 송은이, 그리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연예인 이영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잘 살펴보면 외모가 특별히 돋보이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가치관과 소신을 확고히 지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자신만의 소신을 만들고 경험하며 표출하는 일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92.3%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나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을 표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신을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해 여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혀 고통받는 거북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퍼진 적이 있었다. 기성세대의 경우 안타까움만 표현하고 그쳤을 법한 사진이었으나, 이를 본 밀레니얼 세대는 행동부터 달랐다. 플라스틱 빨대를 버리고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적극 구매하는 등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용품을 찾아 나선 것이다. 당시 실리콘 빨대 펀딩 성공률은 6,000%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의 패키지 포장을 과감히 없앤 '러쉬'의 '네이키드' 제품도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제품의 사용과 보관이 불편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환경을 생각해 이를 충분히 감수하고 소비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를 변화시킬만한 행동력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일상에 소신을 녹여내기도 한다. 화장과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외모 코르셋에 반기를 들며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가지고 있던 화장품을 부수는 등 여성을 중심으로 일명 '탈코르셋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거나 동물 보호 의미를 담은 배지를 액세서리로 당당히 착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소신 표현은 일상 그 자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성별의 관념을 없앤 젠더리스 제품들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사각팬티는 왜 남자만 입어야 하지?'에서 출발한 여성용 드로어즈는 펀딩 성공률 1,500%를 기록했고, 여성이 아닌 남성을 색조 화장 모델로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는 론칭 2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30%를 20대 남성이 차지하기도 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통념이나 성 역할을 '강요' 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소피커의 특성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로부터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모든 것에 과감히 반기를 든다. 조사 결

Q 자신의 소신 표현에 관한 밀레니얼 세대의 경험은?



최근 6개월 이내 소신을 표현해본 경험이 있다

(base=전체, n=900) |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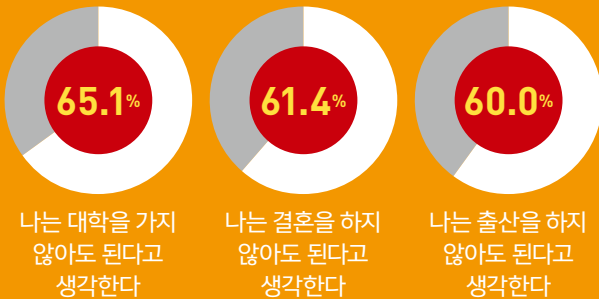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성공률 6,000%를 달성한 실리콘 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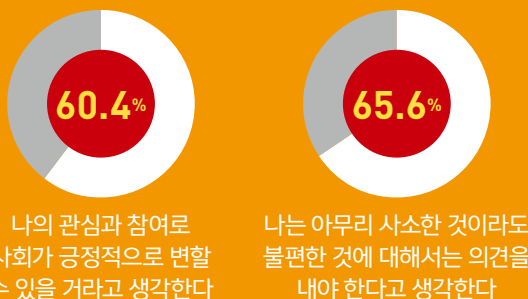
패키지 포장을 없앤 러쉬 네이키드

Q 사회적 고정관념에 관한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은?



(base=전체, n=900 / 긍정응답률 기준) |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Q 사회 인식에 관한 밀레니얼 세대의 답변은?



(base=전체, n=900) |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과 밀레니얼 세대 60% 이상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신 표현에 거침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배경에는 사회 변화 가능성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의 관심과 참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60.4%)'고 생각했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함에 의견을 내야 한다(65.6%)'고 여긴다. 대통령 탄핵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내 힘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세대이기에 '다른 불편한 것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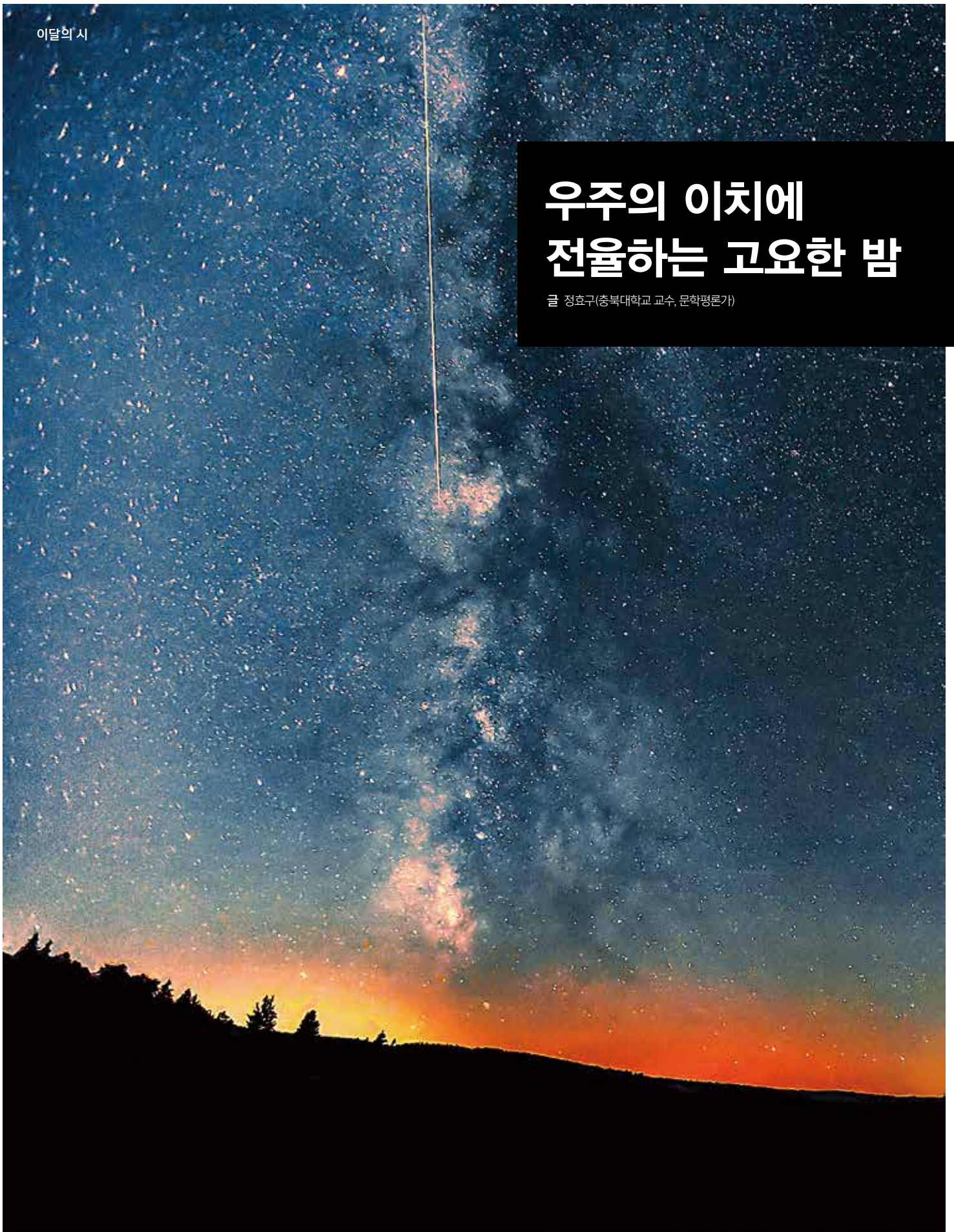
이런 성향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문화도 바꿔놓았다.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지라도 소신 있는 기업 또는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신념과 소신을 보여주는 기업의 사소한 디테일은 소피커, 즉 밀레니얼 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이자 응원해주고 싶은 요소로 다가온다.

소피커는 부정과 불의를 향한 소신은 물론 결혼이나 관계, 소비 등 조금 더 개인에게 맞춘 가벼운 '소의'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은 소의 명분 마케팅으로 밀레니얼과 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소외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 나의 참여와 관심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강한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소신을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대의명분보다 소의명분이 중요해진 시대다.

이달의 시

우주의 이치에 전율하는 고요한 밤

글 정호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임보(林步, 1940~) 시인은 본명이 강홍기입니다.

문학청년 시절, 프랑스의 시인 랭보(A. Rimbaud)를 사모하여 그의 이름을 음사하듯 ‘林步’라고 적어 이를 평생 필명으로 삼아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낭만적인 풍경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의 최근작 <적요의 밤>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요즘은 조금 낯설어진, 그러나 심오하고 철학을 가진, 그래서 되살려 널리 쓰이도록 하고 싶은 어휘가 이 시의 제목 속에 들어있는 ‘적요’라는 말입니다. 적요란 우리의 육안으로 본 현상계 너머의 참다운 실상 혹은 근원적인 진리의 풍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실상과 진리의 풍경을 다 표현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실상과 진리의 풍경은 말의 한계를 넘어서 있으니까요.

야보도천(冶父道川)이라는 중국 송나라 때의 대선사는 <금강경>에 주해를 다는 한 부분에서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림야
一聲寒雁唳長天 일성한안려장천

이라고 계송을 읊었습니다. 이 계송에서 핵심은 적요의 시적 표현인 ‘적적요요(寂寂寥寥)’입니다.

적요! 이는 일상어로도 그렇거니와 시로써 실감 있게 드러내기도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것을 임보 시인은 위 시에서 아주 잘 구체화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이 가려운 것과 저 머나먼 히말라야 설산에 눈사태가 나는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 자신의 귀가 가려운 것이 남태평양의 어

느 무인도에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 자신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저 은하계의 어느 행성에 오색 운석이 떨어지는 일과 교응하고 있다는 것,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훈이 자신이 떠나왔던 전생의 어느 범종 누각에서 누군가 지금 범음을 꽃피우며 종을 치고 있는 까닭이라는 것, 이런 연기법과 일체법과 통일장 이치의 구체화로 시인은 ‘적요’의 세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요를 직시하거나 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실은 중중무진의 연기의 장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지하여 살고 있는 상의상존(相依相存)의 땅이란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배타적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는 상호교응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을 단절된 개체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종의 본래적인 큰 한계입니다만, 이런 한계와 그로 인한 부작용은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절된 개체로서의 자아 인식은 분명 착각이고 단견입니다만, 그 착각과 단견이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고독감과 단절감 속에서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지만 동시에 너’라고, ‘너는 너이지만 동시에 나’라고, ‘인간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자연’이라고, ‘자연은 자연이지만 동시에 우주’라고, ‘먼 곳이 실은 가까운 곳’이라고, ‘무관한 것이 실은 유관한 것’이라고 아무리 눈 밝은 연구자들이나 경험자들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서 즉각 실감하기 어렵도록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위 시에서 말하듯이, 너무나도 깊이 연결돼 있으며 너무나도 놀랍게 교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 해석과 무관한 세계의 실재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저 머나먼 어느 먼 도시에서 누군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오늘 밤 당신에게 알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다면 저 먼 어느 오지에서 누군가 실연의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적요(寂寥)의 밤

임보

적요의 밤

내 등이 가렵다

히말라야의 어느 설산에

눈사태가 나는가 보다

적요의 밤

귀가 가렵다

남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

거센 파도가 이는가 보다

적요의 밤

잠이 오지 않는다

내 은하계의 어느 행성에

오색의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나 보다

적요의 밤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훈...

내가 떠나왔던 아득한 전생의

종루에서

누군가 지금 종을 울리고 있나 보다

- 『푸른솔 문학』 2018년 가을호에서

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거나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게서 누구에게나 있는 특별한 점과 평범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라는 것, 그것이 어기의 내레이션, “난 평범한 열 살 꼬마가 아니다”로 시작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걸”로 끝나는 <원더>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나’를 넘어 ‘당신’을 이해하는 과정

이 주제는 첫째로, 어기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적용된다. 어기의 과학 선생님은 물병 뒤에 ‘now’라고 쓰인 카드를 놓고, 물병에 물을 따른다. 그러자 빛이 굴절되어 ‘won’이라는 단어를 만든다. 원래 단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반대로 보게 만드는 물과 빛의 속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하고 평면적이었던 사물의 이면을 보게 해주는 이 작은 에피소드는 영화 후반부, 어기의 외모는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대사 및 어기와 잭이 과학경진대회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어 사람들이 사물을 거꾸로 보게 만드는 장면과 대구를 이룬다.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은 주변에 잘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장애나 기형을 가진 사람들과 늘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더>가 바로 그런 매개 혹은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주변인들의 사연으로 이야기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영화는 학교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어기의 시점으로 시작해 점차 내레이터를 늘려나간다. 영화는 어기의 누나인 ‘비아’, 어기의 학급 친구 ‘잭 윌’, 비아의 친구 ‘미란다’가 차례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또래들이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여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어기를 사랑하지만 모든 것이 동생에게만 집중된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비아, 그런 비아의 마음도 모르고 깨어진 자신의 가정과 달리 화목해 보이는 어기네를 부러워하는 미란다, 어기를 따돌리는 친구들과 어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잭 윌 등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담백하게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이들 중 평범한 아이는 없다. 어기와는 다른 방향에서 비아, 잭, 미란다도 조심스레 다가서야 할 아이들이나 것이다.

누군가의 성장은 우리 모두의 성장이다

여기가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5학년을 졸업하게 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함몰되어 있던 자신의 문제를 시나브로 잊어버리고 타인의 상황과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성장의 과정과 맞물린다. 어기네 반려견 ‘데미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던 날, 어기를 부르러 간 비아는 동생에게 “세상 모든 일이 너랑 관련된 건 아니야.”라고 말한다. 홈스쿨링을 하던 어기가 집을 벗어나고, 얼굴을 감추고 있던 헬멧을 벗은 채 학교라는 사회를 경험하며 조금씩 어른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데이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며, 엄마가 다시 학위에 도전하는 것을 응원하고, 누나가 연극 무대에 선 것을 축하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것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다는 사실을 어기도 조금씩 알게 된다.

어기를 놀리고 괴롭히는 줄리안과 교양 없는 그의 부모 등 전형적인 악역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약자를 배려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이 영화 내내 소소한 감동을 전달한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그 현실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달라진다면 현실도 조금씩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원작인 R. J. 팔라시오의 소설도 함께 추천하고 싶다. 볼수록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어기의 미래를 응원하게 되는 작품이다.

그에게서 누구에게나 있는 특별한 점과 평범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라는 것, “난 평범한 열 살 꼬마가 아니다”로 시작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걸”로 끝나는 <원더>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뉴스

창립 38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28일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 정성과 지혜를 모아 시대적 책무를 다해나가자”는 신년사의 당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유공직원 및 근속직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2018년도 시정권고사례집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29일 2018년도 시정권고 현황, 주요 대표사례 및 시정권고 결정 목록을 담은 <2018년도 시정권고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계간 <언론중재> 봄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3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50호)를 발행했다. <Focus on Media> 섹션의 대주제는 ‘매체환경의 변화와 OTT 현황 및 과제’로, 김보람 위원(서울제5중재부,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의 「온라인 동영상 사례 연구를 통한 피해구제 방안 모색」 등의 기고글이 수록되어 있다.

위원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3월 13일자로 중재위원 6명(서울 3명, 지역 3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서울제1중재부	신헌석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3. 13. ~ 2021. 8. 31.
서울제3중재부	이동연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3. 13. ~ 2021. 8. 31.
서울제6중재부	정도영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3. 13. ~ 2020. 11. 8.
대구중재부	손현찬	(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 3. 13. ~ 2021. 8. 31.
경기중재부	이건배	(현)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 3. 13. ~ 2021. 8. 31.
제주중재부	김현룡	(현)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3. 13. ~ 2020. 3. 30.

중재위원 사퇴

임신상의 사유로 2월 28일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일자
서울제6중재부	김행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9. 2. 28.

정은령 위원, <韓英 언론세미나> 주제 발표

정은령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韓英 언론세미나>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주정민 위원,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세미나 개최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3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 방송시장 M&A의 명망,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콘텐츠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진 위원, <제2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시상식 개최

이재진 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3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SUN 팩트체크센터가 공동 제정한 '제2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이 주제 선정, 검증 방법 등 팩트체크 경험을 발표했다.

윤석년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조 발제

윤석년 위원(광주중재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3월 27일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양소영 위원, 대한변협 '공보이사' 임명

양소영 위원(서울제2중재부, 법무법인 송인 대표변호사)은 3월 4일 출범하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로 임명되었다. 양소영 위원은 '외부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정현 위원, 남해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조정현 위원(경남중재부, 법무법인 창해 대표변호사)은 3월 19일 남해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해양경찰관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고영철 위원, <제주언론 돌아보기I> 발간

고영철 위원(제주중재부, 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은 2월 25일 <제주언론 돌아보기I>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제주지역 언론의 역사를 총 망라하면서 제주언론의 구조적 문제와 성찰, 미래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창립 38주년, 그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은?

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창립 38주년을 맞았습니다. 위원회가 그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과연 몇 건이나 될까요?

**최초의 조정사건
독도에 관한 학술 강연내용 발취보도**

학회 대표인 신청인은 해당 보도에 서양인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연도와 발견자가 잘못 기재되었으며,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저작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며 조정을 신청했으나,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57,291건

청구건수



1981년 **44건**

2018년 **3,562건**

피해구제율



1981년 **39.0%**

2018년 **71.4%**

2018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모두 6만 건에 육박합니다. 1981년도에는 청구건수가 4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3,562건을 처리하였고, 피해구제율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8번째 생일을 맞은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사업 공모

201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연구주제

지정주제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

응모자격

1.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2. 언론 유관 학회, 단체 및 연구소

공모기간

2019년 4월 1일(월) 10:00 ~ 2019년 4월 19일(금) 17:00

접수안내

1. **제출방법** : 연구제안서 등 서류 작성 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또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팀(02-397-3045, pac3044@pac.or.kr)으로 문의바랍니다.